

The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Love and Romance : Discourses and Meanings in Romance Novels

Kim, Yei-joo

Corresponding author, Songpa Book Museum Curator, Korea
linagogo@naver.com

Yoo, Choon-dong

First author,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sechaek@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romance novels in Korean literary history, viewing love and romance as socially and culturally shaped rather than purely personal emotions. It traces representations of love from early Korean literature to the pre-liberation period. The study also connects these with modern popular media, showing continuity and change. Ultimately, it seeks to reinterpret the literary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romance novel.

Methods The research reviews historical changes in the concepts of love and romance. It analyzes representative romance novels from each era as primary texts. Modern dramas, films, and OTT content are also examined for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addition, surrounding discourses such as capitalism, market forces, and female readership are considered.

Conclusions Findings show that romance novels mirror each era's socio-cultural context. They represent collective desires and ideologies, not just personal emotions. In feudal times, romance reflected free love; in modern times, autonomous choice; and today, ambiguous "some" relationships. Romance novels both reinforce capitalist ideologies and offer readers spaces of identification and consolation.

Keywords Love, Romance, Romance Novels, Historical Aspects, Popular Culture, Capitalism, Female Readers

<https://www.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0.312.003

Received: Sep. 20. 2025 ; Reviewed: Oct. 10. 2025 ; Accepted: Oct. 20.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사랑과 연애의 시대적 재현 : 연애 소설의 담론과 의미*

김예주/유춘동

목 차

1. 서론
 2. 우리 문학에서 애정 소설의 흐름과 변화
 3.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의 사랑과 연애: 「지귀」와 「최치원전」
 4. 조선 전기의 사랑과 연애, 그 변주(變奏): 『금오신화』와 『주생전』
 5.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랑과 연애: 『춘향전』의 등장과 영향력
 6. 마무리와 과제
-

1. 서론

‘사랑’은 두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사적(私的)인 영역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즉 ‘사랑’이란 인간 내면의 정서인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탄생했다는 것이다.¹ 이러한 ‘사랑’을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연애’이다.

연애란 사전적으로 ‘남녀가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좋아하고 사귀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연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과거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제도적 관습에서 벗어난 사랑이 연애로 인식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 이 글은 2025년 송파책박물관의 ‘기획특별전’인 ‘책 속에 꽃 핀 사랑’의 도록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유성호(2020). 문화 에세이: 연애란 무엇인가. CULTURA.

연애가 부모에 의해 정해진 결혼이 아닌,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사랑의 형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부모에 의해 강요된 ‘정해진 인연’이 아니라 본인이 ‘주체’로 나서는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를 연애로 본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썸’이라는 개념처럼 복잡한 관계 정의 없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만나는 단계도 연애로 간주하기도 한다.

‘연애’는 이처럼 각 시대마다 늘 복잡다단한 양상과 정의를 보여 왔다. 시대별 연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침병 역할은 소설이 맡았다. 이러한 소설을 우리는 ‘연애 소설’이라고 부른다.² 이들 소설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사랑의 경향과 시대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문학의 시작에서부터 해방 시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연애 소설을 통해 다양한 연애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우리 문학에서 애정 소설의 흐름과 변화

이야기 문학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며, 내용과 형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옛날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라 부르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소설(小說)’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변모해왔다. 이때 각 시대마다 담긴 ‘남녀 사이의 애정과 연애의 이야기’도 함께 변했다.

우리 이야기 문학의 시작은 삼국시대부터로 보는데,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의 남녀 간의 애정과 연애를 담은 이야기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지귀(志鬼)」가 있다. 시간이 흐르며 신라 말기와 고려 초에 이르러서는 중국 당나라의 전기(傳奇)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등장했는데, 『수이전(殊異傳)』에 수록된 「최치원전(崔致遠)」이 그 예다. 이 시기의 이야기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원하는 짝을 만나지 못해 원한(怨恨)이 맺혔다가 죽은 뒤에야 진정한 애정을 이루는 내용이 많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고전소설의 시대가 열렸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금오신화(金鰲新話)』이다. 김시습이 쓴 이 책에는 여러 편의 소설이 담겨 있는데, 이들

2 근현대 문학에서의 ‘연애 소설’은 주로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과 연애 과정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가리키며, 개인의 감정과 연애의 전개에 초점을 둔다. 본고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애정 소설’과 ‘연애 소설’이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작품의 남녀 주인공은 모두 ‘재자가인(才子佳人)’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즉 재주있는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두 사람의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여주인공을 귀신(鬼神)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이전 시기의 이야기를 변형한 것으로, 결핍된 사랑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산 자와 죽은 자의 사랑이라는 설정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점차 현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이에 남자 주인공은 재주와 학식은 뛰어나지만 권력에서 소외된 인물로 설정되었고, 여자 주인공 역시 상층 사대부가의 죽은 귀신이 아닌 비양반층 여성으로 바뀌어 두 사람의 현실적인 사랑과 연애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주생전』이다.³

조선 후기에는 여주인공의 설정이 또 한 번 달라진다. 이제 여주인공은 더 이상 ‘미모와 재주를 갖춘 명문가의 여성’이나 ‘비양반층 여성’이라는 전형적 틀에 머물지 않고, 기녀 계층의 인물로 등장한다. 이것은 낮은 신분의 여성이 높은 신분의 남자와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신분을 끌어올리는 이야기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춘향전』이다.

조선시대의 소설은 남녀 간의 신분 차이를 보이고, 신분 제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극적으로 성사되는 구도를 보여주었다. 즉 조선 시대 ‘애정 소설’은 완벽한 재자가인의 사랑에서 시작하여, 한미한 양반 출신 남성과 상층 귀족 여성 사이의 사랑, 그리고 이후에는 양반 남성과 기녀 사이의 사랑으로 변화해 갔다. 이러한 ‘남녀 간의 애정과 연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한 신분 상승의 욕망,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남녀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결혼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로 보여주었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야기로나마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 시켜 주는 대리 충족의 서사가 바로 조선시대의 ‘애정 소설’이었던 것이다.⁴

그러나 외세의 영향으로 근대가 도래하면서, 한국 소설은 서양의 근대적 사랑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근대 소설은 남녀의 결합이 부모의 강제가 아닌, 당사자 간의 연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사랑이나 애정 관계에서의 물질성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헌신적인 순애보의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대의 ‘애정과 연애’를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사랑』, 『장한몽(長恨

3 서지영(2011). 역사에 사랑을 묻다: 한국 문화와 사랑의 계보학. 서울: 이숲, 41.

4 서지영(2011). 45.

夢)』, 『순애보(殉愛譜)』, 『찔레꽃』 등이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해방 이후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은 혼전 교제와 배우자 선택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까지는 ‘연애 - 사랑 - 결혼’이 일치된 것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남녀 간에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이러한 시대의 민감한 변화를 소설은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려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인간의 불멸의 감정으로, 이를 다룬 연애 소설은 때로 상업적이고 저급한 대중문학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하지만 연애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랑을 꿈꾸게 하며, 진정한 사랑이 주는 의미와 깨달음을 통해 살아가면서 생기는 남녀 간의 여러 ‘애정 장애’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각 시대별로 보여준 연애 소설의 다양한 성취의 역사를 주요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한다.⁵

3.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의 사랑과 연애: 「지귀」와 「최치원전」

삼국시대의 사랑과 연애를 보여주는 대표 이야기로 「지귀」가 있다. 이 작품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했던 평민의 슬픈 이야기를 보여준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신라 시대, 관아에서 하찮은 일만 하던 역졸이 우연히 선덕여왕을 보고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지귀는 불귀신이 된다. 이 작품은 사랑에 있어 신분 문제와 장애를 다루며, 우리 이야기 문학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를 보여준다. 먼저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귀는 신라 시대 활리역에서 일하는 역졸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선덕여왕을 만난 그는 그날부터 여왕의 아름다움에 반해 상사병에 걸린다. 그리고 날마다 초췌해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 소식은 여왕의 귀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왕은 역졸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절로 갈 때, 그를 만나겠다고 약속한다. 지귀는 기쁜 마음에 여왕을 만나기 위해 원래 약속 시간보다 일찍 절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여왕을 기다리다 문득 깊은 잠에 빠졌다. 여왕은 역졸을 만나기 위해 절로 왔지만 잠이 든 그의 모습을 보고 깨우지 않고

5 이 글에서 다룬 애정 소설은 각종 문학사에서 거론된 대표작이다. 제한된 지면으로 모든 작품을 다루지 못하고 일부만을 다루기로 한다.

자신의 팔찌를 풀어 그의 가슴에 놓아두고 궁으로 돌아갔다. 잠에서 깨어난 지귀는 그렇게 보고 싶던 여왕을 만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다 억울함이 폭발해 불귀신이 되었다.

「지귀」는 미천한 신분의 남자가 고귀한 신분의 여성을 사랑한다는 설정과 자신의 실수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비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의 내용은 후대의 다양한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지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는, 이은상의 「사상(史上)의 로맨스」처럼 더욱 확대되고 부연되어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되기도 하였다.

한편, 신라 말 고려 초에 등장한 「최치원전」은 우리 애정 소설사에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이 소설은 실존 인물인 최치원을 등장시켜, 두 여자 귀신과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는 당나라 전기(傳奇) 소설의 영향을 받았으나, 중세적 규범의 강요로 인해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유 연애라는 관점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획득했다. 또한 실존 인물인 최치원의 불우한 삶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며 우리만의 문학적 개성을 드러낸다. 「최치원전」의 전체 내용을 짧막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치원은 신라를 떠나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그는 과거에 응시했고 장원 급제하여 율수현위가 되었다. 하루는 초현관에 나가서 노닐다가 두 여인의 무덤을 발견했다. 그는 두 여인이 부모의 반대로 사랑했던 사람과 혼인하지 못하고 자결했다는 사연을 듣는다. 이에 위로의 시를 지어 무덤 석문에 붙였다. 무덤에 귀신이 되어 누워 있던 두 여인은 최치원이 지은 시에 감동해 밤이 되어 최치원을 찾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유한 장사꾼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자신들의 뜻과 달리 다른 남자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자 죽음을 택했던 사연을 자세히 들려준다. 최치원은 이들과 하룻밤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이들은 이승과 저승으로 헤어지고 영원히 그리워한다.

우리 이야기에는 남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전통적인 애정 소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새로운 명제를 보여준 것이 「최치원전」이다. 이와 같은 남녀의 사랑은 지금의 관점으로 보아도 매우 진보적인 사랑의 형태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사랑을 다루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원혼이 어렵게나마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전 시대의 애정 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형식과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사랑과 연애’를 「지귀」와 「최치원전」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모두 당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많은 인기를 얻은 애정 소설의 대표 작품들이다.

4. 조선 전기의 사랑과 연애, 그 변주(變奏): 『금오신화』와 『주생전』

조선시대 애정 소설의 화려한 시작을 열었던 작품은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였다. 이 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은 중국소설 『전등신화(剪燈新話)』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김시습 특유의 세계관, 조선 사회의 애정과 만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오신화』에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 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애정 소설로 분류되는 것은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이다.

「만복사저포기」는 ‘만복사의 부처와 저포놀이’라는 뜻이다. 주인공 양생이 특별히 좋아하는 여성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아름다운 짝을 구하지 않고 부처님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이다. 「만복사저포기」의 줄거리를 짚막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남원부에 양씨 성을 가진 서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장가를 들지 못한 채 만복사 동쪽 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일방적으로 부처님과 내기를 한다. 그 내기는 자신이 이기면 자신이 만나지 못했던 반쪽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내기에서 양생이 이겼고, 곧 만복사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녀가 죽은 혼령임을 알게 되고, 그녀의 환생을 위해 제문을 지어 기원한다. 여인은 양생과 이별한 후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잊지 못해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내다 생을 마친다.

남주인공 양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장가도 들지 못한 한미한 집안의 남성이었다. 여인은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였다. 자신의 처지로 누구도 좋아할 수 없었던 양생은 부처님과의 내기로 여인을 보게 되고, 보자마자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사실 여인은 왜적의 침입으로 자신을 지키려다 죽은 혼령이었다. 양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혼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어간다. 결국 양생이 제문을 지어 그녀를

환생시킴으로써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가 지닌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랑, 고독한 두 청춘 남녀의 한풀이적 성격의 사랑,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제문을 지어 환생을 시키는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 바로 「만복사저포기」이다.⁶

한편, 『금오신화』에 또 다른 뛰어난 애정 소설이 있다. 바로 「이생규장전」이다.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장을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남주인공 이생이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최랑을 훑쳐보고 서로 사랑하게 되며, 이후에 그녀의 집 담을 넘어가 담대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이생규장전」의 줄거리를 짧막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성 송도에 이생이 있었다. 그는 서당에 다니던 중 우연히 담장 너머로 양반집 규수 최랑을 보게 된다. 이때부터 이생은 그녀에게 연모의 정을 품게 되고, 결국 그녀의 집 담을 넘어가 사랑을 고백한다. 이생을 본 최랑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되어 두 사람은 매일 밤 비밀스럽게 만나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챈 이생의 부모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린다. 이생이 곧 상사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생의 부모는 최랑의 집에 혼인을 청한다. 하지만 최랑의 부모는 가문의 차이를 이유로 거절한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혼인에 성공하지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며 헤어지게 된다. 전란이 끝난 뒤 최랑이 이생 앞에 다시 나타난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며 몇 년간 함께 산다. 어느 날 최랑은 이승의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고 사라진다. 이생은 그녀를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한다.

「이생규장전」은 두 남녀가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담을 넘는 행위처럼 당시 사회 규범을 깨고, 신분 차이를 극복하며 사랑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 이생이 담장을 넘는 모습은 봉건 사회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수였던 남녀 결합의 사회적 제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최랑 역시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당시 여성으로는 보기 드문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전란 속 이별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조선 전기에 등장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집안 출신이라는 설정을 통해 계층 간 역전을 보여준다.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려는 주체적인 모습을

6 이문규(2009). 고전문학으로 한국인의 사랑 읽기. 서울: 새문사. 116.

드러낸다. 셋째, 이들의 사랑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사랑이라는 초현실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역설적 감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금오신화』가 보여준 남녀의 비극적 애정과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애정소설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주생전』이다. 『주생전』은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넘어선 새로운 애정 소설의 면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주생전』의 줄거리를 짚막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생은 총명하여 태학에서 촉망받는 인물이었지만 과거 시험에서 계속 낙방한다. 이에 주생은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꾼이 되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닌다. 그러던 중 전당에서 기녀인 배도를 만난다. 둘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주생은 이웃에 사는 승상의 딸 선화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는 선화의 동생 국영을 가르칠 기회를 얻고, 이때부터 배도를 멀리하며 선화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배도는 결국 이러한 주생의 배신을 알게 된다. 그러던 중 주생은 선화와 헤어지게 되고, 그가 사랑했던 배도가 죽음을 맞이한다. 주생이 선화와 어렵게 혼인을 약속하고 혼례를 치르던 날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주생은 조선으로 출병하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선화가 죽음을 맞이한다. 주생은 이 비극적 사랑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주생전』은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과 달리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앞선 두 작품은 산 사람이 귀신과 사랑을 나누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주생전』에서는 이러한 초현실적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및 갈등의 전개가 철저하게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남녀 주인공 사이의 ‘삼각관계’에 의한 애정 갈등이다.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에서는 남녀 주인공 사이의 애정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장애란 것은 애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죽은 자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운명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의 남녀 간의 애정은 상호 독점적이어서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성격을 보인다.⁷ 그렇지만 『주생전』에서는 이와 달리 삼각관계에 의한 사랑이 설정되어 있다. 주생은 처음에

7 이상구 역주(1999).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서울: 월인. 12-13.

는 배도를, 다음은 선화를 사랑하며, 사랑에 있어 변절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도와 내용 전개는 이전 소설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즉 『금오신화』가 비극적인 결말과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통해 환상성을 강조했다면, 『주생전』은 현실 속 등장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이전 소설의 ‘환상성’을 극복하고 ‘현실성’을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애정 소설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운영전』, 『상사동기』, 『최척전』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작품들은 모두 선행작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변주를 시도했던 것들이다.

5.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랑과 연애: 『춘향전』의 등장과 영향력

조선후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애와 사랑을 보여준 작품이 바로 『춘향전』이다. 이 소설은 신분이 다른 기생과 양반 사이의 계급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우리 애정 소설의 대표작이다. 『춘향전』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창한 봄날, 이도령은 꽃 구경을 위해 방자와 함께 광한루로 나선다. 그곳에서 그네를 타던 춘향을 보게 된다. 이도령은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방자를 통해서 그녀와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춘향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준다. 그날 밤 이도령은 춘향과 춘향의 모친 월매를 만나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고, 월매는 그를 사위로 받아들여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나며 두 사람은 이별한다. 이후 등장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강요와 압박을 가하며 갈등을 일으킨다. 이도령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와 춘향을 구하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결합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춘향과 이도령은 처음 만나자마자 호감을 보였고, 춘향은 방자의 중재로 마지못해 이도령을 만났지만 그의 양반 신분과 출중한 외모에 매료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며 찾아오게 만들고, 두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 과정에서 춘향은 이도령에게 자신과 맺은 애정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불망기(不忘記)’를 요구한다. 불망기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각서였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망기가 계산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대상

에게 영원한 사랑의 징표를 받아내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당찬 신세대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결합 과정에서의 모습은 이전 소설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대의 사랑과 연애의 모습이었다.

춘향과 이도령은 난관을 이겨낸 모습에서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변학도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고 춘향의 의지를 꺾으려 하지만, 춘향은 이에 당당히 맞선다. 이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춘향의 강인함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당시 신세대 여성을 대변한다. 춘향은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며,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전 시대 서사 문법과는 차별화된 사랑의 성취 과정을 보여준다.

『춘향전』이 지닌 최고의 매력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성취에 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과 기생 사이에 대등한 결합이란 있을 수 없었다.⁸ 만일 혼인한다고 해도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의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남녀의 관계를 설정했다. 이처럼 『춘향전』의 이야기는 전대의 이야기와 다른 측면을 지닌 소설이고, 이 소설은 곧 조선 후기 변화하는 시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인물상과 이야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춘향전』의 이러한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 작품은 당시 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었던 세책본(貫冊本)과 나무판에 내용을 새겨 대량으로 찍어낸 방각본(坊刻本)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의 ‘소설’은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었다. 상품인 소설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야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알고 있던 익숙한 이야기에 새로운 변형을 추구해야만 했다. 특히 당시의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문화상품인 소설이 만들어낸 새로운 담론이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출현한 『춘향전』은 당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런 『춘향전』의 성공에 힘입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계속 등장했다. 그리고 이때의 이야기는 『춘향전』의 구조를 변형-확대-재생산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주목할 것은 여주인공의 신분이 ‘기녀’라는 점이다. 기녀라는 설정에서 변형을 주어, 『추풍감별곡』과 같은 작품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 기녀가 되어 사랑을 성취하는 이야기 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옥중화』와 같이 기존에 있던 문어체에 가까운 『춘향전』에서 벗어나, 좀 더 생동감

8 이문규(2009). 319-320.

있는 구어체 창(唱)과 대사를 엮어서 만든 새로운 『춘향전』의 이본이 탄생하게 되었다.

6. 근대 시기에서 해방 이전까지의 사랑과 연애: 『장한몽』, 『무정』, 『사랑』, 『찔레꽃』

근대 시기 연애 소설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근대적 사랑의 개념이 스며든 다양한 작품들이 번역·번안되면서, 조선시대까지 접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을 선보였다. 그 시작이 바로 1910년에 등장한 『장한몽』이다. 이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의 확산과 맞물려 ‘돈’이라는 물질적 욕망이 사랑과 연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장한몽』은 일본 소설 『금색야차(金色夜叉, 곤지키야샤)』를 번역·번안한 작품으로, 조중환(趙重桓)이 『매일신보』에 1913년부터 1915년까지 연재하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수일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친구였던 심택의 집에서 성장한다. 이수일은 심택의 딸이었던 심순애와 어렸을 때부터 혼인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친구의 집에 옷놀이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대부호의 아들인 김중배를 만난다. 순애에게 매혹된 김중배는 보석과 돈으로 순애를 유혹하고, 이로 인해 순애의 마음은 수일로부터 멀어져 갔다. 이를 알게 된 수일은 순애의 마음을 여러 번 되돌려 보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순애는 중배와 결혼하게 된다. 한편 수일은 복수를 위해 고리대금업자의 서기가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수일을 배신한 순애는 미안한 마음으로 중배와 온전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다. 결국 그녀는 투신 자살하려 한다. 그때 수일의 친구에게 구출되고, 수일과 순애는 재회한다.

『장한몽』은 두 남녀의 사랑에 있어 새로운 장애물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전 시기까지 두 남녀의 사랑의 장애물은 신분의 차이였다. 그렇지만 『장한몽』부터는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욕망, 이에 현혹되어 자신의 원래 연애 대상과 사랑을 저버리는 상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장한몽』의 결말은 짝을 버린 배신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물질적 욕망보다 정신적 연대와 진실한 사랑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한다. 『장한몽』의 등장은 당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어 이와 유사한 아류작들을 양산해낸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이광수의 『무정』과 『사랑』 등에서 새로운 연애와 사랑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에 총 126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된 후, 1918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소설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 작품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핵심은 어릴 적부터 부모 때문에 정혼(定婚)을 했지만 이러한 혼약을 깨고 신여성과의 연애를 통해서 결혼한다는 근대적 ‘연애’, ‘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무정』은 이처럼 당대 연애와 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광수의 인식은 『유정』에서 정점을 찍는다. 그는 소설을 통해서 당대 지배적인 남녀 사이의 사랑·애정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유정』의 줄거리를 짚막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인 순옥은 안빈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교사를 그만두고, 새로 공부하여 그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한다. 의사지만 문인으로도 명성이 높은 안빈은 결혼한 인물이었다. 지력과 미모가 뛰어난 순옥이 병원에서 일하자 안빈의 아내 옥남은 둘 사이를 의심한다. 그러던 중 안빈의 아내는 죽음을 맞이한다. 안빈은 아내의 죽음으로 순옥과 혼인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인 사랑을 선택한다. 한편 순옥은 안빈에 대한 사랑과 옥남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다 방탕한 허영과 결혼한다. 하지만 그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아 현신적으로 그를 뒷바라지하며 살아간다.

안빈은 유부남이었지만, 아내가 죽음을 맞으면서 혼자가 된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순옥과 결합할 기회를 얻지만, 이를 택하지 않고 정신적 사랑으로 남는다. 순옥 또한 안빈의 생각에 동조하며 그와 결합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택한다. 이를 통해 순옥은 현실의 물질적인 이해와 육체적 욕망을 초월한 이상주의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광수는 그의 아내 허영숙에게 병원을 열어줄 만큼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연애 소설이 당대 독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1930년대는 가히 대중소설의 시대, 그 중에서도 대중 연애소설의 시대였다. 이처럼 대중 연애소설이 성황했던 이유는 상업주의적 속성이 짙어진 신문과 잡지 등이 대중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연애’를 신문의 연재소설로 다루었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흐름에서 새로운 러브스토리의 시작으로 불리는 작품이 김말봉의 『질레꽃』이다.

『찔레꽃』은 1937년 3월 31일부터 그해 10월 3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가, 1939년에 인문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출간된 뒤로 6판을 찍어낼 만큼 당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찔레꽃』의 줄거리를 짧막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학교 출신의 안정순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은행 두취(지금의 은행장) 조만호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만호와 그의 아들, 딸은 모두 정순을 좋아하게 된다. 심장병을 앓는 조만호의 아내는 정순에게 질투를 느껴 쫓아내려 하지만, 정순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그 집에 머문다. 한편, 만호의 딸 경애는 가정교사 정순의 애인인 이민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던 중 두취 조만호가 부인을 잃자 그는 안정순을 재취로 맞아들이려고 침모에게 중매를 들 것을 청한다. 그러나 그 재취 자리를 탐내고 있던 침모는 만호를 속이고 자신의 딸을 대신 방에 들여보내 만호와 합방하게 하려 한다. 공교롭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만호의 오랜 애인 기생 옥란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침모의 딸을 살해한다. 이처럼 복잡한 욕망이 얽힌 상황 속에서, 결국 정순은 모든 누명을 벗고 찔레꽃처럼 그녀의 순결을 온전히 간직한 채 그 집을 떠난다.

『찔레꽃』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갈등을 극기와 인내로 이겨내는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켜 이타적 사랑의 절대성과 이상을 보여준다. 고난으로 서사화되는 현실적 한계를 희생으로 극복하며 완벽한 성모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한다. 정순은 경애가 자신의 약혼자 민수를 사랑하고 결혼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수와의 관계를 밝히고 싶었지만, 민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아닌 경애와의 결혼이 더 낫다고 판단해 민수를 포기한다. 이로써 정순은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진다.

『찔레꽃』은 복잡하게 얽힌 삼각관계 속에서 여주인공 정순이 민수의 사랑과 만호의 재산이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국 물질적·육체적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 한계를 희생과 포기로 극복한 인물이 승리한다는 점에서, 자기희생과 헌신이 대중 연애 서사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소설은 연애 소설이면서 동시에 계몽·교육 소설의 성격을 함께 지닌 작품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까지의 소설은 사랑과 연애에 있어서 ‘순애보’와 같은 사랑관을 전개했

9 진선영(2020). 한국 베스트셀러 여성작가의 러브스토리 코드.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67-69.

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사랑과 연애는 이러한 사랑론에서 벗어나, ‘연애-사랑-결혼’이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헌신적인 여성상을 중심으로 한 이전의 사랑 서사가 아닌,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관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소설가로 정비석 등을 들 수 있다.

7. 마무리와 과제

지금까지 우리 문학의 시작부터 해방 이전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연애 소설의 계보를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도 영화, 드라마, OTT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애와 사랑 이야기가 생산되고 있다. 「도깨비」에서 보여준 시대와 나이를 초월한 불멸의 사랑, 「사랑의 불시착」에서 남북 관계의 현실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사랑, 「눈물의 여왕」처럼 재벌 딸과의 결혼을 꿈꾸는 ‘남자 신데렐라’ 서사 등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을 사로잡으며 이어지고 있다.

연애 소설이 이처럼 꾸준히 등장하는 이유를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사랑을 권유함으로써 결혼 시장이 열리고, 결혼 시장 때문에 신규 부동산 시장이 열리고, 출산과 사교육, 불륜 등 다양한 시장이 열린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사랑과 연애를 강권하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이념이기 때문¹⁰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연애 소설을 ‘진지한 문학’이 아닌 ‘가벼운 읽을거리’로 보고, 독서 시장에서 여성 독자의 취향을 겨냥한 상업주의적 문학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출현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순정파 남성의 헌신적인 사랑, 시한부의 한시적 삶을 통한 영원한 사랑 등은 모두 여성 독자의 취향을 겨냥한 여성용 동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설명을 떠나 연애 소설은 그 서사와 상상력 속 주인공이 곧 자신이 길 바라는 독자의 소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다. 소설 속에서는 새로운 요지경 세계가 펼쳐진다.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독자는 독서를 통해 많은 즐거움과 위안을 얻는다. 그렇기에 이러한 연애 소설의 장점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10 백영옥. (2023년 10월 19일). Why. 그 작품 그 도시. 남녀 사이에 우정이 가능? 영화 ‘프렌즈 워드 베네핏’ 맨해튼. 조선일보.

11 이정옥(2001). 감상주의 연애소설의 상품화 전략. 여성문학연구, 6, 251.

[References]

- Go, Mi-Sook(2014). The Age of Romance. Seoul: Bookdramang.
- Jin, Sun-Young(2020). The Love Story Code of Korea's Bestselling Female Author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risteva, Julia(2008). Histories of Love (Kim, In-Hwan, Trans.). Seoul: Minumsa.
- Kwon, Bo-Derae(2003). The Age of Romance. Seoul: Hyunsilmunhwa.
- Lee, Moon-Kyu(2009). Reading Koreans' Love through Classical Literature. Seoul: Saemunsa.
- Lee, Sang-Gu (Trans. & Annot.)(1999). 17th-Century Romance Novels. Seoul: Wolin.
- Park, Il-Yong(1992). Romance Novels of the Joseon Dynasty. Seoul: Jipmundang.
- Park, Tae-Sang(1997). A Study of Romance Novels in the Joseon Dynasty. Seoul: Taehaksa.
- Research Society for Popular Literature (Ed.)(1998). What Is a Romance Novel? Seoul: Kukhakjaryowon.
- Seo, Ji-Young(2011). Asking History about Love: Genealogy of Korean Culture and Love. Seoul: Isup.
- Yoo, Sung-Ho(2020). Cultural Essay: What Is Romance? Seoul: CULTURA.

사랑과 연애의 시대적 재현: 연애 소설의 담론과 의미

김예주

송파책박물관 학예연구사(교신저자)

유춘동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제1저자)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랑과 연애가 개인적 정서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한국 문학사 속 연애 소설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 문학의 시작부터 해방 이전까지 연애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사랑의 양상을 시대별로 추적하고, 현대 대중매체 속 연애 서사와의 연속성을 검토함으로써 연애 소설의 문학적·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먼저 연애와 사랑의 개념 변천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각 시대별 대표적 연애 소설을 텍스트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애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대 드라마·영화·OTT 콘텐츠에 나타난 연애 서사의 지속성과 변화를 함께 검토하였다. 나아가 연애 소설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자본주의적 이념, 상업주의적 독서 시장, 여성 독자 취향 등—을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장르적 의미를 다각도로 탐색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연애 소설은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랑의 의미와 양상을 반영하며,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서사가 아닌 집합적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건 사회에서는 제도적 구속을 벗어난 자유연애, 근대에는 주체적 사랑의 선택, 현대에는 관계 정의 이전의 ‘뽀’까지 확장되는 개념 변화가 소설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연애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랑을 이념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독자가 주인공과 동일시하며 위안을 얻는 문학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연애 소설은 가벼운 대중문학이 아니라 시대와 독자의 욕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 텍스트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핵심어 사랑, 연애, 연애 소설, 시대별 양상, 대중문화, 자본주의, 여성 독자

이 논문은 2025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